사 설

난민 구호는 불교도의 사명

종교의 사회적 기능은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인간의 존엄성 수호라는 점에서 공존공영과 평화의 지평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은 종교 공동의 관심사다. 이 같은 공동선의 실천이 있기에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런 점은 불교 역시 마찬가지라 말할 수 있다. 특히 생명의 현양과 자비의 실현은 불교의 핵심인 것이다.

로히니강의 물을 독점하기 위해 상·하류에 거주하는 부족 간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물이 인간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단 말인가?"라며 이해 당사자들을 화해시켰다. 고독한 사람,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을 돌보아 주는 것이 부처님 당신을 섬기는 것이라 가르치기도 했다. 복전 중에서 빈궁전은 가난하거나 병든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며, 이 빈궁전을 실천하면 무량한 복덕을 받게 된다고 가르치기도 했다.

이라크전쟁이 끝나자 조계종, 천태종, 경불련 등 많은 불교 단체들이 이라크 난민 구호활동에 발 벗고 나섰다는 소식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 궁행한다는 점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전쟁 당사국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이념을 떠나 아무런 이유 없이 죽거나 상처받은 사람들, 굶주림과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작은 위안이나마 줄 수 있다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적 양심이자 작은 기쁨이 아닐 수 없다. 구태여 한국전쟁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들은 이민족의 아픔까지 어루만져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불교도의 사명감을 자각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인의 연등축제

일반 시민 및 외국인들까지 부처님 오신뜻을 기리고 즐거움을 나눌수 있는 봉축 행사가 해가 갈수록 풍성해진다. 외국인들이 연등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기간에 맞춰 방한하는 일도 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올해는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연등이나 염주 만들기 등 하루 참가보다도, 사찰에서 묵으며 발우공양, 다도, 참선 등의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템플라이프 프로그램이 여러 사찰에서 준비되고 있다.

지난해 월드컵때 처음 시작한 템플라이프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참가자 대부분이 "매우 훌륭한 프로그램"이라는 찬사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다"는 말을 남길 정도로 포교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들에게 우리의 고유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은 전통문화를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사찰밖에 없다. 앞으로도 템플라이프 참가를 원하는 외국인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외국인들에게 많이 보여준다거나 한국수행법의 우수성을 알린다고 다짜고짜 참선만을 시키는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외국인들 스스로 편안해 하고 한국불교의 깊은 멋을 느끼게 하는, 그 사찰만의 특색을 살린 조촐하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하나 시급한 문제는 통역인력의 확보다. 템플라이프는 활성화 되는데 한국불교를 제대로 설명할 통역자가 부족해서야 되겠는가.

이렇듯 세계인의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 불자들은 더욱 서원을 세워 부처님의 자비 가르침이 널리 펴질 수 있도록 정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겠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외국인 템플라이프 프로그램 잇달아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공대생 30여명이 16일 조계사 앞마당에서 컵등을 직접 만들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화란 아인트호벤 공대생 30명 조계사서 발우공양·등 만들기

주한외교사절·상사임원 부인 봉은사 선식강연·사찰음식체험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외국인들을 위한 템플 라이프 프로그램이 잇달아 열리고 있다.

조계사는 16일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공과대학 학생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템플 라이프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날 외국인학생들은 참선 발우공양 연등만들기 예불을 체험했다.

또 26일에는 호주 관광단이 조계사 불교문화체험에 참가할 예정이며,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고창 선운사와 해남 미황사에서 외국인 불교체험 사찰답사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34명 정원의 외국인 불교체험 답사여행은 사찰소개, 발우공양, 다도, 새벽예불, 부도전 탁본 등으로 진행된다.

우곡선원은 5월 4~5일 충북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10개국 외국인 유학생(대학, 대학원) 참선, 발우공양 체험 수련을 실시한다.

봉은사도 5일 제 1회 주한외교사절 및 상사임원부인 초청 전통사찰 체험행사를 시작으로 템플라이프를 시작했다. 봉은사는 하루일정으로 사찰참배, 발우공양, 다도시연, 선식 강연, 사찰음식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5월 2일 봉은사에서 열리는 '등 전시회' 개막식에 대통령 영부인 권양숙 여사와 주한외교사절을 초청, 차담 및 등 만들기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봉은사 외국어통역봉사모임인 문사수회 이정희 총무는 "월드컵 이후 한동안 뜸했던 외국인들의 한국불교에 대한 관심이 부처님오신날을 계기로 다시 늘고 있다"며 "한국불교를 소개하는 템플 라이프를 더욱 활성화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종헌·종법개정특위 열려 특별소위 구성키로 합의

조계종 종헌·종법 개정 특별위원회는 14일 첫 회의를 열어 간사에 혜림스님을 선출하고, 다음 회의 때 특위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또 특위의 활동범위 및 방향은 다음 회의 때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소위원회를 구성해 특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28일 2차 회의를 열어 소위원회 구성 및 특위 활동방향과 범위를 결정키로 했다. 한명우 기자

공동대표의장 법장스님 한국종교지도자협 추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16일 삼청각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법장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공동대표의장으로 추대했다. 종교지도자협의회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민족종교, 천도교, 유교 등 7개 교단의 대표자로 구성된 연대와 화합을 위한 기구다.

한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도 17일 서울 하림각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법장스님을 새 회장으로 추대했다. 한명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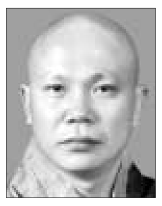
조계종 대변인 현고스님

조계종 총무원은 16일 종무회의를 열고 기획실장 현고스님을 종단 대변인으로 지정했다.

현고스님은 "종책 방향을 알리고 종단의 이미지를 높이는 일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종정예경실장 선각스님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은 14일 종정 예경실장에 선각스님을 임명했다.

선각스님은 혜인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94년 범어사에서 일타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한 뒤 해인사 수선안거 이래로 17안거를 성만했다. 제11, 12대 중앙종회의원과 해인사 방장 사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한명우 기자

비구(니)스님 341명 새로 탄생

조계종, 통도사서 23회 구족계 수계산림

조계종에 비구·비구니 341명이 새롭게 탄생했다.

15일 통도사에서 열린 조계종 제23회 구족계 수계산림에서 비구 172명, 비구니 169명 등 모두 341명이 구족계를 받고 조계종의 정식 승려가 됐다. 지난 9일 사미(173명), 식차마나니(171명) 신분으로 입방한 이들은 4급 승가고시와 일주일간의 정진을 거쳐 이날 수계증과 법계증을 받았다. 3명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돼 구족계를 받지 못했다.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린 회향식에서 전계대화상 보성스님은 "항상 도를 닦음에 모든 인연과 장애를 벗어나서 정법을 이어감에 어려움이 없게 하고, 국가와 민족이 평안함을 기원하고 서로 화합하여 참고 견디는 수행의 힘을 길러 도업을 이루는데 목숨을 바쳐야 할 것"이라는 법어를 내렸다.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회향사에서 "금강석 같이 단단한 신심으로 오늘 세운 서원을 굳게 다짐하라"고 당부했다. 권형진 기자

"폭력책임 통감…원융화합 전기 되길"

98년 조계종 사태 징계자 90여명 참회 성명

월탄, 정우, 성문, 원학 등 98년 종단사태 때 멸빈 등의 징계를 받은 징계자 90여명이 17일 참회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비록 그 동기가 종정스님의 교시 봉대와 교단 정화 및 민주화에 있었다 하더라도 국민과 종도 여러분에게 커다란 실망과 우려를 야기시키는 폭력사태로 비화되게 한 책임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음을 가슴깊이 통감하고 있다"며 "98년 총무원장 선출절차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월주 전 총무원장 스님에게 누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정한 원융화합의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지난 10일 사면복권 검토위원회가 멸빈자를 포함하는 대사면을 단행키로 하면서, '멸빈 징계자 중 참회의사를 밝히지 않은 자의 경우는 교계 신문 지상에 공개적 참회를 해야만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붙인데 따른 것이다. 한명우 기자

'현대' 만평

심 민 섭

송광사 삼월불사 및 가사불사 회향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16국사의 도량, 승보종찰 조계산 송광사는 보조국사이래 근대에 이르기까지 청정승가의 수행과 화합의 정신인 목우가풍을 계승해 왔으며 국제 선원과 하계 수련회를 통하여 국내외에 한국불교의 위상을 널리 선양해 왔습니다. 이번 삼월불사에는 보조국사 종재 대법회를 봉행하고 가사불사 회향과 보살계 수계 산림은 성대히 갖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불사에 사부대중들의 수희 동참을 바라면서 이 인연공덕으로 다같이 복해가 구족하고 큰 깨달음을 이루어 모두 성불하여지이다.

1. 일 시 : 불기 2547(2003)년 4월27일(음 3.26) ~ 28일(음 3.27) 2일간

4월 27일	4월 28일
◇오전 10시 : 가사불사점안 및 삼대화상탱화점안 ◇오후 2시 : 보살계 입재식 ◇오후 3시 : 보살계 법문 ◇오후 7시 : 송광사 신도 총회 ◇오후 9시 : 철야정진	◇새벽 3시 : 새벽예불 ◇새벽 4시 : 보살계 법문 ◇오전 7시 : 보살계 수계식 및 법성도 요잡 ◇오전 10시 : 보조국사 종재봉행 및 영가천도재 ◇오전 11시 : 점심공양 및 회향

2. 동참방법 : 삼월불사나 가사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송광사 종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송광사 종무소 061)755-0107 ~ 9 / FAX : 061)755-0408

3. 동 참 금 : ● 삼월불사 보살계 수계동참 : 30,000원, 영가천도 동참금 : 10,000원
● 가사불사 : 한 벌 동참금 : 300,000원
· 온라인 번호 / 우체국 : 501676-01-000849(예금주 송광사)

승보종찰 송광사 주지 현봉 합장